

HIROSAKI

0:46	첫 번째는 공모전이었습니다.
0:49	<p>히로사키시는 앞서가는 미래를 제시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벽돌 창고를 허물지 않고, 시에서는 근대 또는 산업 유산으로 미래로 이어가자는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청년이라는 틀 안에서 이런 공공 공모전이나 미술관을 지을 수 있는 기회도 흔치 않아요. 이 정도 기회를 얻었으니 최선을 다해서 단기간이라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일을 무엇인가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p>
1:21	<p>눈과 추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저는 도쿄에서 태어났지만 홋카이도에 가거나 북유럽에 가기도 하고, 프랑스에 갔다가 에스토니아에 가기도 하는 등 극한의 추위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히로사키역에 도착해서 (목적지로) 가려고 할 때, 역시 이곳은 오래된 도시라는 것이 확 느껴지거든요.</p>
1:48	<p>왜 그런가 하면, 길이 돌아있어서 그래요. 구불구불하게 휘어져 있어 마치 신비한 소용돌이처럼 똑바로 가려고 해도 흘러가는 느낌이 들어요. 중심부로 향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 성곽 마을에서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 마을의 지성이나 지금이 아닌 다른 시대의 건물이나 분위기, 상점가의 독방길 등 그 시대를 느낄 수 있는 마을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이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p>
2:19	<p>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한 가지 건축물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만들어도 한계가 있어요. 히로사키에는 정말 다양한 시대의 건축이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면 도시가 반응하죠. 그런 소양이 있는 도시, 문화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도시라면 단숨에 활력이 생기고 여러 곳에서 반응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더 열심히 해보자고, 거기서부터 한꺼번에 나아갔던 것 같아요.</p>

<p>3:05</p>	<p>공공건축의 바람직한 모습으로서 공공의 돈으로 어떻게 미래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물론 그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지만, 역시 미래의 시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과거의 시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공공성을 통해 연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p> <p>지난 100년 동안 사람들이 쌓아온 것을 계승할 수 있을까, 이것을 지킴으로써 앞으로 사용할 다음 세대가 사용하고 싶어 할까. 저는 이를 의문으로 치환했을 때 필요한 것은 최대한 지키고, 물론 미술관이라는 목적을 생각하면서 '시간적'이라는 하나의 시간 속에서 사물을 생각하는 형태로 취했습니다.</p> <p>방의 수를 늘리는 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방의 사용 시간을 바꾸어 그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원래 있던 공간은 최대한 그 공간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또는 그 동선을 살리면서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적응을 통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식의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면 대화가 생기고, 대화를 내면 시의 이해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p> <p>역사문화가 있는 도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관공서에 계셔서 공동작업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p>
<p>5:46</p>	<p>보통 리노베이션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면 새로운 것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p>
<p>5:55</p>	<p>낡은 것이 앞으로 나오게 하고, 얼마나 새로워지지 않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프랑스를 거점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탈리아, 프랑스, 특히 이탈리아는 복원 보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손때가 묻어있는 무게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p>
<p>6:17</p>	<p>이미 자신들의 힘을 넘어서, 한 세대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계승하고 있는 건축의 모습에 저는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곳도 어떤 시대에는 쌀 창고로 쓰이기도 했고, 과실주가 나왔던 시대에는 다시 만드는 방법을 바꾸기도 하는 등 정말 다양한 시간의 층이 담겨 있어요. 창고가 쓰임새가 바뀌어도 여러 시간 층의 한 층으로, 패치워크처럼 중요한 시간들이 뒤섞여 있는 것처럼, 새로운 것이 아닌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p>

<p>7:08</p>	<p>히로사키시의 공모전 요청사항 중에 '레트로 모던'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보자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벽돌 창고에 대해 고고학적으로 파헤치는 아키올로지컬한 작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도 했죠. 설계를 하기 전에 기초 지식으로 갖춰야 할 것들을 파고드는 것과 같은 것들 방대한 리서치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이미 잊혀지거나 단절된 것을 발굴하는 고고학적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히로사키에 사과가 있다는 점에서 사과를 어떻게든 술로 만들려고 프랑스에서 기술자를 불러 시드르(Cidre)라는 프랑스식 애플사이다 양조법을 통해 술을 만들었다고 해요. 여기 히로사키에서 만들어진 기억을 미래로 만들어 갈 때, 이 낡은 지붕과 낡은 벽돌과 창고를 현대미술 미술관으로 만들 때, 어떤 문화적, 사회적 메시지로 바꿀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사과와 시드르의 기억이라는 것을 지붕으로 삼아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 내고 이 지붕을 보는 것으로 인해 원풍경이 만들어지는 것에 건축이 관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계승'이라는 큰 컨셉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p>
<p>8:44</p>	<p>시간이 지나면 눈이 쌓이기도 하고, 각각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빛이 조금씩 다른 각도로 조금씩 빛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하는. 일본 건축의 좋은 점인 시간이 지나면서 쌓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움직임을 가미하는 것도 포함해서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p>
<p>9:03</p>	<p>지금은 전시가 미디어화되기 쉽지만, 기본적으로 미술관은 소장품(컬렉션)이 있고, 소장품의 연구, 복원 보존이 있고, 거기서 약간의 공개를 하자는 것이 기본. 19세기적으로 볼 때, 대의를 위해선 컬렉션이 있어야 하고, 컬렉션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번엔 소장품이 없는 미술관을 하려고 하니 정말 그런 대담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놀라움도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미술관을 만들어서 컬렉션을 모으는 구조를 만들어서 소위 장소 특정적 미술이라고 불리는 이곳의 벽돌 창고에서만 볼 수 있는, 작가에게도 이곳에서만 전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기억을 축적할 수 있는 박물관의 모습도 지방에 있는 미술관의 구조로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p> <p>동시에 지방과 세계가 연결되는 시대인 만큼, 세계로 발신한다는 점에서 히로사키와 세계가 연결시킬 수 있어요. 이곳 전시실의 철골도 '폴롱소 시스템'이라는 프랑스의 여러 기차역을 설계한 기술자의 것을 사용했습니다. 프랑스식 지붕이 만들어졌다면, 이쪽엔 '퀸 포스트 트러스'라고 불리는</p>
<p>10:21</p>	<p>영국 목조 건축의 대형 스패 구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와 히로사키의 벽돌 창고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 히로사키와 세계를 연결한다는 콘셉트와 현대미술의 미술관으로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제 마음입니다.</p>

10:56	<p>미술관 하나로는 불가능한, 또 좋은 의미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성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생활방식도 다르고, 거리 풍경도 다르고. 도시가 생긴 시대도 다르고, 도시의 시작도 모두 다른 그런 도시에 5곳의 미술관이 존재하고 서로 연계함으로써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나 미디어뿐만 아니라 정말 예술과 건축이 좋은 형태로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지던시도 그렇고, 아티스트도 동시 개최 같은 일도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을 서로 교체하거나, 5개 관이 협업하는 것은 아마 세계 사례를 봐도 시립 미술관에서는 찾기 힘들기 때문에 흥미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p>
-------	---